

# 우리는 왜 그를 좋아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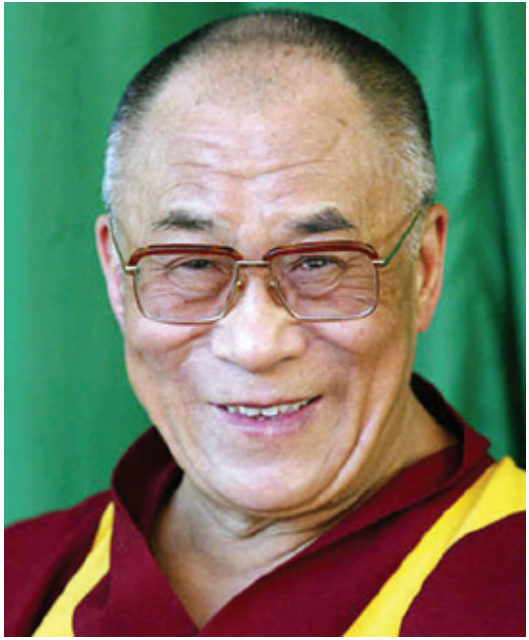
## 로버트 서먼 교수, 달라이 라마를 통해 티베트의 미래 밝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에 대해 호감을 표한다. 저명한 과학자, 정부고관, 국가원수들까지 불교와 그다지 관계없어 보이는 이들조차도 그를 좋아한다. 단지 티베트 고원 출신의 승려에 불과한 달라이 라마를 사람들은 왜 이토록 좋아하는 걸까.

달라이 라마는 이제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지명도가 높다. 세계의 영혼을 위로하는 상징적 존재가 됐다.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60여 년간 억압당하고 핍박받아 온 티베트인들을 이끌어 온 티베트 최고의 지도자이며 전 세계에 무럭 대신 비폭력을, 절망 대신 희망을, 적을 친구로 삼는 자비와 용서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 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민족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선미(眞善美)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에 더욱 열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여전히 망명자 신분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이 도덕적 권위를 부여해도 그에 대한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이 티베트를 억압한 지도 반세기기를 훌쩍 넘기고 있다. 제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가츠는 네 살 때 달라이 라마로 공식 인정돼 1959년 3월 10일 23세의 나이로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설립했고, 그로부터 52년 간 행정 수반과 종교 지도자로서 중국에 맞서 티베트의 독립과 자치를 위해 고군분투 했다. 책은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를 왜 좋아하고, 왜 사람들이 그를 존경심으로 대하는지, 왜 아직도 그는 망명자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 담고 있다.



2011년 3월 10일 달라이 라마는 라사 평화봉기 52주년 추모 행사에서 티베트 망명정부의 정치적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티베트가 자유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4월 27일 티베트 망명 정부는 선거를 통해 톱상 상가이를 후임 총리로 선출했다. 티베트 정부는 비로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이원 정부로 재탄생했다.

티베트 불교 전문가이자 콜롬비아대 불교학 전공 교수로 활동 중인 저자 로버트 서먼은 이러한 달라이 라마의 행적과 발언을 바탕으로 티베트 문

해해결을 위한 5단계 계획안에서부터 자치를 얻은 후, 티베트의 미래와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활발 제도에서 정교본리로 변혁기를 맞아 정치, 종교, 문화, 환경문제까지 티베트의 조용한 혁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책은 단지 티베트나 달라이 라마의 일생에 대해서만 풀고 있지 않다. 인권과 평화의 근본을 다루면서 분쟁에 휩쓸려 있는 세계에 도발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 저자는 달라이 라마의 일생을 밝혀가며 원력으로 얻어진 권력은 진리의 단순한 행동에 맞서 더 이상 제대로 풀릴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티베트에서 실행 가능한 관광, 에너지, 대체의학, 고부가가치 농업 등에 관한 경제적인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국과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들이 단순히 중국의 문제만 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달라이 라마라는 인물과 그의 가치를 통해 여러 각도에서 저자 눈에 비친 티베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티베트인들이 가진 고유한 신화적·종교적·정치적·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터준다. 달라이 라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로버트 서먼 저음문정희 옮김김경사 펴냄 1만3000원 이은정 기자



# 대만 불교를 키워낸 선사의 이야기

## 대만 법고산 창건주 성엄 선사 자서전 '눈 속의 발자국'



세 살 때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고 다섯 살 때까지는 말을 못하며 더디게 배우는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가 훗날 세계 불교계의 거목 중 한 사람으로, 대만불교 4대 본산의 하나인 법고산을 창건하고 대만불교를 세계불교의 강력한 중심으로 격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바로 성엄 선사(聖嚴禪師: 1930~2009)이다.

《눈 속의 발자국》은 성엄 선사의 자서전이다. 계율 정립, 선교통합, 불교 대중화를 성공시킨 스님의 생생한 삶의 역정이 책에 담겨있다.

“늙은 바람이 많고 추웠다. 늦은 밤 도시가 고요할 때 나는 승복 자락으로 몸을 단단히 감싸고 거리를 유랑했다. 종종 눈이 내렸다. 나는 스스로

를 ‘풍설(風雪)속의 행각승’이라고 불렀다.(본문 중에서)”

미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널리 활동하며 중국불교를 세계에 알린 성엄 선사는 중국 상하이 근처 시골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14세에 출가해 상하이에서 불학원을 다닌 스님은 대만에서 군복무 후 다시 출가, 6년간 폐관수행하며 경전 공부와 수행에 전념했다. 이후 일본에 유학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각지에서 수행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인들의 선 수행을 지도하는가 하면 대만에 법고산을 창건했다.

《눈 속의 발자국》에서는 이러한 스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차분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을 출판한 탐구사는 서평에서 성엄 선사에 대해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불교 억압으로 대륙의 불교는 쇠퇴했으나 대만에서는 불교가 오히려 크게 발전했는데, 여기에는 성엄 선사와 같이 불교 발전을 위해 큰 원력을 세우고 부단한 노력의 주역들의 노력이 큰 밑바탕이 됐다”며 “정정한 계율, 폭넓은 교학 공부, 치열한 수행으로 요약되는 대만불교의 특징은 바로 성엄 선사의 삶과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한국불교의 쇠퇴를 위해 성엄 선사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눈 속의 발자국성엄 선사 저음 탐구사 펴냄 1만5000원 이나은 기자



# 식재료에도 불성이 있다

## 선재 스님, 11년 만에 사찰음식 이야기 펴냄



“한 방울의 물도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해야 진정한 요리사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자와 청소년들이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음식을 상용하는 식습관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음식이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찰음식이 현대인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음식 모델이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30년 동안 사찰음식을 연구해온 선재 스님은 “건강한 몸, 맑은 영혼의 토대는 음식”이라며 “사찰음식은 몸과 마음이 하나니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깨달음에서 시작 된다”고 설명했다. “자연이 존식 재료에 감사하고, 식재료에 불성(佛性)을 살려 요리를

하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에 감사하며 먹을 때 음식은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밝혔다.

선재 스님은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사찰음식으로 치유시켰다. 스님은 신홍사 청소년 수련원 등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음식으로 변화시킨 체험 사례들을 엮어 11년 만에 음식수행에 관한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바꾸린 사찰음식》을 펴냈다.

선재 스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존재 기반인 자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은 관련 사진들을 풍부하게 담아 사찰음식문화의 뿌리를 알려주며, 사찰음식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중요 레시피도 함께 담고 있다. 스님은 사찰음식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 행복적인 사람들의 인연담과 더불어 경전 말씀에 바탕한 음식 철학을 말하고 있다.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바꾸린 사찰음식선재 저음불광출판사 펴냄 1만7000원 이은정 기자

# 한지전통등 집에서 직접 만들자

## 전통등 작가 전영일과 함께하는 등만들기



연등회, 연등축제, 전통등전시회가 활성화 되면서 사라져가던 전통등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다.

정교하면서도 섬세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전통등을 보면서 제작방법에 대해 궁금해 한 이들도 여럿 있을 것이다.

10여 년 넘게 한지전통등의 복원 및 현대적 계승과 전통등 문화 확산에 투신해온 전영일 작가는 《누가 만들어도 참 쉬운 한지 전통등》을 출간해 독자들을 한지전통등의 세계로 초대한다.

책에서 전 작가는 1500년을 이어온 한지전통등의 역사와 현재를 소개하고 구상과 재료, 글조, 전기, 배접, 아교포수, 채색과 코팅 등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 설명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가지 전통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등, 행렬등, 인테리어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등의 제작방법을 아낌없이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10여년 이상 전통등을 만든 오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노하우와 더불어 많은 제작과정 사진을 사용해 전통등을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전영일 공방의 대표인 전영일 작가는 13년전 ‘전통등연구회’에 참여하면서 전통등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부터 지금까지 전통등의 복원과 현대적 구현, 그리고 전통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 전시회와 해외 전시회를 개최했고, 해마다 연등축제에 사용되는 대형장엄등을 제작하며, 각종 전통등 강습회를 주관하며 많은 후배 작가들을 양성 지원했다. 누가 만들어도 참 쉬운 한지전통등전영일 저음불광출판사 펴냄 2만5000원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감사하고 사랑하며	우학	좋은 인연
3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슬
4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바꾸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5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문상
6	한 권으로 읽는 법화경	보경	민족사
7	바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8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김정호	불광출판사
9	부처의 말	코이케 료스케	21세기북스
10	론사아스만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불조정맥 중, 영, 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화 두 영, 중, 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학 문의 031-534-3373

‘한글세대·영어세대를 위한 유식학 출간!’

Mind-Only Science

오직 마음일 뿐인 유식의 세계

지은이 고 목

신간

연락처  
도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유식사상연구회 T.055-353-6142

신국판 300쪽 W12,000

미리마

디자인특허출원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陽 后入 崇길동 靈駕 行孝 伏為

고급 뱀나무 재질  
울칠 마감  
음악으로 각인 후 금칠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中 (넓이 10cm X 높이 21cm)  
小 (넓이 8cm X 높이 15cm)
- 흑옥위패 및 단
- 흑단위패

대표전화 : 02-966-9650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주) 대양아트 서울시 중대문구 용두동 756-1 1층

여름방학 가족과 떠나는 성지순례

8월 18일 (확정) 미얀마정부 초청 수계대법회 행사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7일 (요금문의)

7월 27일 (확정)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6일 1,990,000원 → 1,790,000원

\* 모든 경비 포함된 상품입니다.

- 티벳과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 9일
- 지장도량 구좌산 향산 5일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봉 북경 6일
- 대만 정통 불교성지순례 4일 (불광사 | 중대선사 | 자항사 | 아류)
- 방콕 | 파타야 5일, 정사 | 장가계 5일, 백두산 5일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